



남북강선

6

주체105(2016)
루계 제322호 월간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승엄하게, 열정적으로 (♩=75)

작사 차호근
작곡 우정희

1. 우 린 사랑하 네 열 정 의 붉은당 기 아
 침 해와갈 이 우리 심 장 불태우 네 어 머
 니의 - 정든 목소리 - 들리 오 는 렬력 입소 - 리 아를
 다운 - 생을 안 거준 - 세상 제 일소중한기 - 목
 나래 치는꿈 과 의상을 안고 이기발아려 우리 차랐네 -

2. 우린 안고 사네 향도의 붉은 당기
 삶의 걸음걸음 영광예로 이끄네
 존엄높은 생의 숨결을 이어주는 렬력입소리
 한생토록 꺼지지 않을 신념의 불 지펴준 기록
 혁명위해 바친 우리의 심장
 이 기발속에 고통치리라
3. 우린 지켜가네 성스런 붉은 당기
 힘찬 삶의 박동 그 품에만 잇고 살리
 모든 념원 꽃핀 미래로 불러주는 렬력입소리
 일편단심 따르는 길에 태양처럼 빛나는 기록
 대를 이어 우리 세상 끝까지
 이 기발 따라 한길가리라

차 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 . . . 4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 . . 10

변치 않을 신념과 의지의 과시 . . . 18

사상이 안고있는 전리의 혈 . . . 28

백두산담사행군길에 걸든 사연 . . . 29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

명제품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 . . 30

자력 자강의 정신으로 . . . 32

재간둥이들 . . . 34

2층영예의 붉은기학급 소년단원들 . . . 36

조국의 품에 안겨

《기슭으로만 향하는 파도가 되라!》 . . . 37

편지

화목한 우리 가정 . . . 39

고향소식

덕천사람들의 숨결 . . . 40

이역땅에 흠이되는 흙모의 와도 . . . 42





민족의 향기

끝없는 충정의 마음 45

청송의 노래 울려 퍼진 축전 46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이다 48

조선의 권법에 대하여 (3) 49

보석으로 그린 그림 50

력사인물

지리학자 량성지 51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7) 52



우리 민족끼리와 조국통일 53

자멸을 초래한다 54

죄악의 역사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다 56

상식

임신하였을 때 금해야 할 4가지 35

남도와 북도, 좌도와 우도 37

조선봉건왕조시기 명필 54

조선속담 (미움) 55

유모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56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5월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5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의 오랜 력사에서 더없이 준엄한 투쟁의 시기였으며 위대한 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년대였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주체사상, 선군정치, 위대한 승리에 대하여 총화하시었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스런 승리가 이룩되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였다.

우리 당은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 따라 전당과 전군을 주체사상화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쳐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였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조성된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공세를 혁명적공세로 짓부셔버릴 단호한 의지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조직전개하였다.

격변하는 정세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

진하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리고있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는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대의 슬픔이고 상실이였으며 우리 혁명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였다.

민족의 대국상후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군사적 압력과 전쟁도발책동, 경제적봉쇄는 극도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형언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였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에 대하여 우려하고 제국주의반동들이 어리석게도 우리의 《로선변화》와 《체제붕괴》에 대하여 떠들던 시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단호히 선언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오로지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대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하여 조선혁명의 백승의 진로인 선군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분야를 선군의 원칙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정비하였다.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한결같이 일떠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우리는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으며 조국의 안전과 자주권, 사회주의를 수호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속에서도 승리의 신심드높이 조국번영의 앞날을 내다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새로운 단계으로 전진시켰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고 선군정치가 열어놓은 승리의 길을 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가 힘차게 전진하고있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천만뜻밖에

도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민족의 대국상을 또다시 당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잃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장군님의 생전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섰다.

력사적인 당 제4차 대표자회를 계기로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들고나가려는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수령의 유훈 관철전으로 당원들과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당의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우리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위력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대로 부강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운동을 조직전개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치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한것은 총결기간 우리 당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며 업적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청년들을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움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건설하였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특출한 성과는 선군혁명로선, 자위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 우리 조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립적민족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

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은 혁명위업계승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하고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명시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 정치군사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경제발전전략을 들고나가고 문명강국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림으로써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며 당면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 우리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이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온데 대하여서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통일사상과 로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기초하여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켰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의 불길속에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한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결성되고 민족의 슬기를 보여주는 통일행사들이 련이어 진행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운동으로 더욱 확대발전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은 자주통일의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우리는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하며 북과 남의 각 정당, 단체들이 접촉과 래왕, 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를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며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며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가야 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총결기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고립압살책동이 강화되는 속에서도 공화국의 대외관계가 확대발전된데 대해 밝히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나서는 과업을 천명하시였다.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대외정책리념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투쟁목표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비록 지난날에는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나갈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조선로동당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면서 위대하고 존엄높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되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여왔다고 하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하시였다.

* * *



선인축하단과 재중조선인 총련합회축하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위대한 령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북받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 어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보고에서 주체사상, 선군

정치의 위대한 승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회주의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세계의 자주화,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를 끝없는 감격과 흥분속에 접한 참가자들은 대회보고를 지지찬동하는 열렬하고도 격동적인 토론들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결론에서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론을 받아안으며 대회 참가자들은 당 제7차대회를 소집한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새기였으며 대회의 기본정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려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대회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지나온 혁명의 년대들에 조선로동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과 영웅적투쟁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전체 조선로동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열리였다.

대회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권위와 전투적위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였다.

대회에는 각 도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결의권대표자들과 발언권대표자들이 참가하였으며 도당대표회들에서 추천된 당, 무력,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재일본조







조선소년단축하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축하단의 축하문양독이 있었다.

온것처럼 혁명의 붉은기높이 전진도상에 가로 놓인 도전과 난관을 용감히 뚫고 총진군포성을 힘차게 울림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의 분수령으로 되게 할 의지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대회에서는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고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결정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대표자이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열광적인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리였다.

대회장은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 절세의 위인, 탁월한 령도자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격정과 환희,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드팀없는 신념과 불같은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선거에서는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선거세칙에 따라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



은 대회합이었다.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굳은 결의로 총만되어있다.

본사기자 변진혁

였음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호소문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가 발표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폐회사를 하시였다.

참으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진행된 당 제7차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 밑에 백두의 대업을 완성해나아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을 이룬 의의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5월

변치 않을 신념과 의지의 과시

지난 5월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되었다.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력사

적인 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소식이 전해진 때로부터 200일, 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갈 열망을

안고 충정의 전투를 벌여온 때로부터 70여일, 이 땅에 태를 묻은 남녀로소모두가 펼쳐 일어나 세인을 놀래우는 거대

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대회를 가장 뜻깊고 의의있게 경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벌리었다.

양양된 분위기속에 열린 당 제7차대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의 령도밑에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은 온 나라 천만군민을 환희와 기쁨속에 설레이게 하였다. 그것은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에서 남

김없이 발휘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군중시위가 펼쳐졌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동상을 모신 당기발대렬이 들어서자 광장은 격정의 대하로 설레이었다.

군중들은 당창건위업과 그 강화발전예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력사적인 당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감격과 환희가 차넘치는 광장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등의 구호판을 앞세운 대렬이 파도쳐나갔다.

시위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조선로동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당 제7차대회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여주신 그이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한 시위대렬들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공화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빛내여가는 조선로동당의 행로를 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당의 령도밑에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조국의 국력을 우주에 떨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듯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수령의 당》, 《어머니당》, 《강철의 당》, 《일심단결》,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청년중시사상 만세!》, 《주체의 핵강국, 군사강국》, 《우주강국》 등의 글발이 새겨진 가장물들과 함께 용용히 물결쳐가는 당기발대렬, 군인가족대렬을 비롯



기적을 창조하는 승리자의 긍지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조선청년행진곡》의 주악이 울리는 속에 혁명의 화불봉을 추켜든 청년학생대렬도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자라나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쳐가는 긍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군중시위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광장바닥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결사옹위》, 《일심단결》, 《7차

대회》, 《결사관철》, 《병진로선》, 《조국통일》 등의 글발들과 당기, 공화국기가 련이어 펼쳐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속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듯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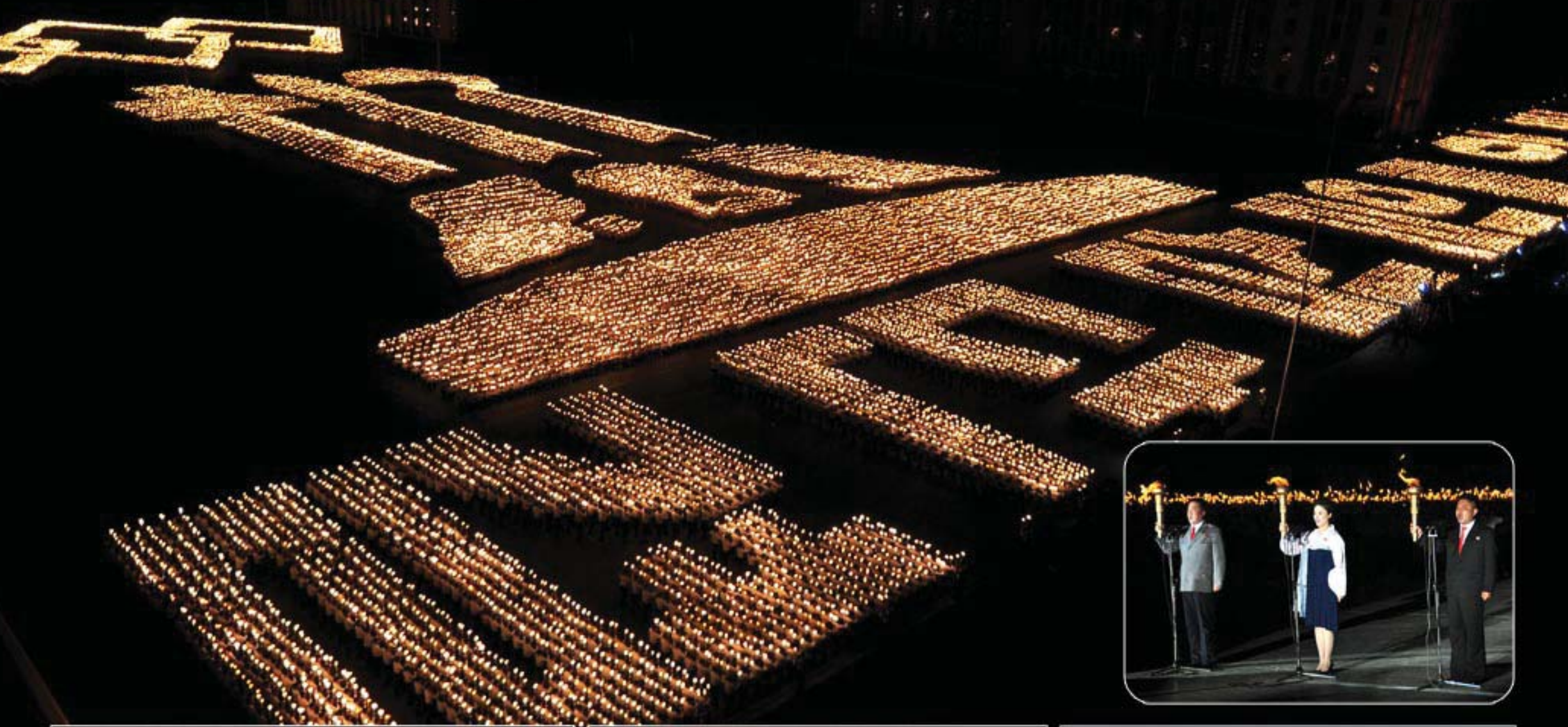
이날 저녁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청년전위들의 화불행진이 있었다.

야회장에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어머니당대회를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환희가 춤물결로 펼쳐지고 당에 드리는 뜨거운 감사와 축원의 마음이 어린 아름다운 꽃바구니가 광장에 수놓아졌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인민의 환희》, 《뵈고싶었습니다》 등의 노래에 맞추어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대를 이어 수령복, 당복을 누려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이 대하되여 굽이치는 야회장은 시간이 흐를







수록 고조를 이루었다.

이어 광장에서는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이 진행되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노래선율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기를 정중히 모신 무게차들이 활활 타오르는 혁명의 해불봉, 주체혁명위업계승의 해불봉을 추켜든 청년전위들의 용위를 받으며 광장으로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존함글발이 모셔지고 《당 제7차대회》, 《경축》 등의 글발들이 펼쳐진 광장은 조선로동당의 70여년력사를 백두산청년대강국을 일떠세운 청년중시의 력사로 빛내여주신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

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려는 청년전위들의 불같은 충정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무한한 감격과 영광의 분출인양 《김정은장군찬가》, 《김정은장군께 영광을》의 노래주악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속에 백두산영웅청년 1호, 2호, 3호발전소를 일떠세운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대렬을 비롯한 해불행진대렬들이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드넓은 경축광장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붉은기도형 등과 《혁명정신》, 《김정일애국

주의》, 《인민사랑》 등의 글발이 밝은 빛을 뿌리며 새겨지는 가운데 기백있는 대형변화와 룰동으로 청년학생들이 펼친 당마크를 중심으로 한 대형원도형이 펼쳐졌다. 그것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따라 곳곳이 나아가는 청년대군의 일심단결의 모습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죽어도 버리지 않을 군대와 인민, 청년들의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의지가 비낀 해불봉을 높이 추켜든 《최후승리》글발대렬이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중앙사진전람회장을 돌아보는 참관자들

야말 신념의 구호를 힘차게 웨치며 발걸음도 드높이 광장을 행진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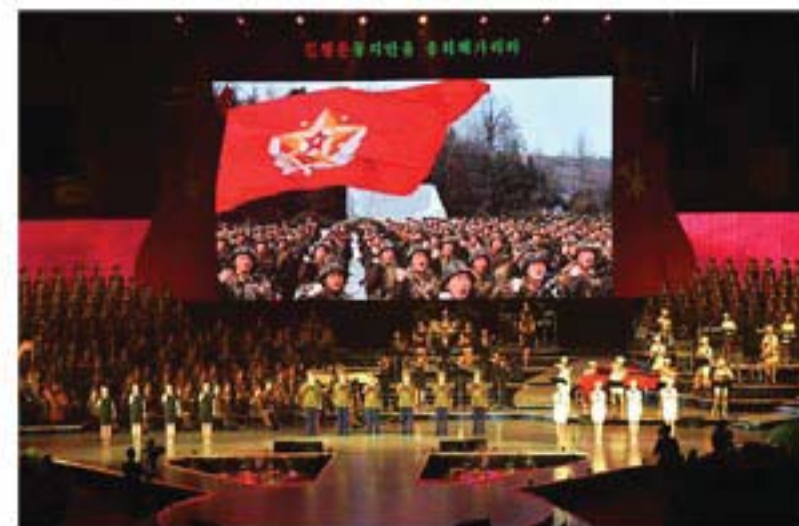
광장에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주악에 맞추어 조선로동당마크도형과 《결사옹위하리라》의 대형글발을 새긴 해불행

진참가자들이 부르며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의 노래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그에 화답하듯 광장상공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중앙미술전시회장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여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이 진행되었다.



연 《영원히 우리 당 따라》도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여 진행된 행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계 싸워나갈 조국의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방은심, 리성익, 리광성

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

《닭알로 바위깨기》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연약한 닭알로 바위를 치면 닭알이 깨어지기 마련이지만 닭알에 사상을 재우면 바위도 깰수 있다는것이 조국인민들이 지닌 사상이다.

이 사상에 대하여 알려면 먼저 저 멀리 흘러간 세월의 언덕을 거슬러올라야 할것이다.

조선의 혁명가들이 혁명을 시작할 때 손에 쥔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있다면 위대한 혁명사상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상의 힘으로 동지를 얻고 무기도 해결하였으며 사상의 힘으로 일본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였다.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에는 전체 인민이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불길로 애국열의를 폭발시켜 새 조선건설의 러전을 닦았다. 미국에 의해 조국땅에 전쟁의 불길이 타번졌을 때에도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보위전쟁에 떨쳐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수치스러운 참패를 주었다. 전후에 미국이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일 때에는 전체 인민이 다시 한번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는 일념을 안고 전후복구건설을 다그쳤으며 천리마의 정신으로 내달려 단 14년만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였다.

더우기 미제를 피수로 한 제국주의무리들이 련합하여 사회주의조선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미친듯이 발광하던 고난의 시기에는 천만 군민이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맞닥든 고난과 난관을 파감히 뚫고나갔다.

이렇게 혁명의 승패와 진퇴를 판가리하는 시련의 고비를 혁명의 일대 고조기로 전환시킨 그 바탕에는 바로 전민의 드높은 애국열의, 사상정신적힘이 놓여있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은 생명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야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수 있다.

사상사업이 없이는 사회주의제도가 태여날수 없고 존재할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사상의 힘에 의하여,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라는데 사

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었지만 오늘 세계의 더욱더 광범한 인민들이 조선의 벽찬 현실에서 사회주의의 길에서만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될수 있다는것을 깨닫고 사회주의를 동경하며 지향하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인민들이 사상적으로 각성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사업의 중요성으로부터 주체84(1995)년 6월 19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라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라는것과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사업의 기본임무 그리고 사상사업은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심오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주체53(1964). 6. 19.]에 벌써 조선로동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과정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중심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나가도록 하시였다.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왔기에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되어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는것이다.

70여년간 미제와 맞서 온갖 전쟁책동, 제재책동을 짓부시며 인민의 운명인 사회주의를 지켜온것은 사실상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온데 있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것을 력사는 진리로 확증하였다.

본사기자 한신애

백두산람사행군길에 깃든 사연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과 슬기를 자랑하며 거연히 솟아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바로 이 태양의 성산에서 조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역센 뿌리가 내리였으며 찬란한 미래의 장엄한 해돋이가 시작되였다.

그래서인지 조국인민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백두산에로의 답사길에 앞을 다투어 오른다.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즐겨찾는 백두산에로의 답사길에는 이런 사연이 깃들어있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인 주체45(1956)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단행하실 대용단을 내리시였다.

당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혁명전통을 흐리게 하려고 음모양모로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대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깨끗이 계승해나갈 굳센 의지를 안으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답사길을 개척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 수령님께 학생소년들로 답사단을 조직하여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을 계기로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려는 의향을 말씀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천보전투가 있는지도 열아홉해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간고한 시기에도 조국으로 진군하여 보천보도 쳤고 무산지구에서도 싸움을 벌렸다고, 이번에 혁명전적지에 가면 항일유격대원들이 어떻게 필승의 신념을 안고 싸웠는가를 똑똑히 배워가지고 오라고 당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속담에 《첫새벽문을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물론 한가정의 새벽문을 여는것은 그리 힘든것이 없다, 하지만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나라의 첫새벽문을 열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을 걷는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런 일은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찬 일로 되는것이다, 혁명전적지에 대한 첫 답사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초행길인것만큼 굳게 마음을 먹고 한번 걸어보라고 위대한 장군님을 고무해주시였다.

혁명전적지답사와 관련하여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받아안으며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자면 그 개척의 첫걸음이 이루어진 백두산에로의 답사행군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시였다.

답사는 주체45(1956)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양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

명제품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제1중학교 학생들로 무어진 답사행군대를 이끄시고 보천보, 삼지연, 리명수를 비롯한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길을 이어가시었다.

그이께서는 답사행군의 나날에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정신과 높은 조직성, 규률성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었다.

이와 함께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들을 더 잘 꾸리며 답사행군로정을 새롭게 개척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그리하여 보천보, 삼지연을 비롯한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들을 훌륭히 꾸릴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으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이 개척되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개척하신 답사행군길은 혁명의 새 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항일혈전의 나날에 걸으신 고난의 행군길을 백두의 혁명정신, 빨찌산불은기정신으로 이어가는 성스러운 길이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는 투쟁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으로 되는 력사의 초행길, 수령의 권위와 업적을 험뜯고 말살하려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게 무서운 칠추를 내린 수령결사옹위의 길이였다.

백두의 넘으로 선군혁명리정표를 세우시고 세상이 열백 번 변한다 해도 끝까지 가야 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로 이어갈 백두의 행군길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강진성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질 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공장의 일꾼인 전옥순은 말하였다.

《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금 우리 종업원들은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멋쟁이공장으로 전변시켜주시고 또다시 찾아오시여 모든 성과를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더 많은 명제품생산으로 보답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 있다.》

공장에서는 식료품생산에서 철저히 인민들의 요구를 질적 기준으로 정하고 새 제품개발사업에 모든 종업원들이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식료품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사랑작업반이 이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높은 지식을 소유하여야 인민들의 높아가는 식료품에

대한 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반원들은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작업반에서는 공장에 구축해놓은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반원들이 원격교육을 받으며 현대과학기술과 세계적인 식료품발전추세를 열심히 배우도록 하고있다.

인민이 요구하고 평가하는 제품을 내놓겠다는 반원들의 불타는 열의와 창발성에 의해 만들어진 사과향사탕, 딸기향사탕, 코코아젓사탕을 비롯한 질 좋은 갖가지 사랑들이 흐름선들을 타고 쉬임없이 생산되어 나오고있다.

사랑작업반 반장 장철옥은 말하였다.

《우리는 현대과학기술을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에 활용하는 과정에 명제품, 명상품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개발하고 생산할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

라는것을 잘 알게 되었다.》

사랑작업반만이 아니다.

과자작업반, 빵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작업반에서도 새 제품을 개발하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집단적경쟁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작업반들에서는 새 제품개발을 위한 현상모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생산자들이 명제품, 명상품의 발명가, 생산자로 되도록 하는것과 함께 가치있는 제품을 개발한 반원들을 높이 평가하도록 하여 그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공장에서는 지난해 19종에 100여가지의 식료품을 새로 더 개발하고 대량생산한데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박차를 가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지금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수십종에 수백가지나 된다고 한다.

겸작업반의 한은경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을 더 많이 내놓을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명제품, 명상품을 만들기 위한 개발경쟁, 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이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이 가닿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굴지의 주체비료생산기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기업소일군인 윤정국은 《지금 우리 기업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하여 부글부글 끓고있다. 올해 시비년도 주체비료생산목표를 통이 크게 세운데 맞게 그 실현을 위해 설비,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자력자강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박력있게 일판을 벌려나가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기업소에서는 현대화이자 국산화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적극 불러일으켜 75t보이러 2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생산활성화를 위한 연료, 원료보장을 확고히 앞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대중의 양양된 열의가 비료생산성파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기업소의 모든 직장, 단위들에서 자력자강의 열풍속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고있다.

선행공정인 성형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있다.

주체비료생산의 첫 공정인 봉탄생산을 담당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직장의 생산자들은 건조로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확고히 보장하여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이들은 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기업소의 보수부문 노동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건조로의 생산능력을 2배로 끌어올리면서 맡겨진 봉탄생산계획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다.

발생로1, 2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을 내밀면서 발생로능력을 확장

하기 위한 기술혁신도 동시에 내밀어 비료생산의 중요부문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다.

그런가 하면 암모니아직장의 생산자들은 우리 식으로 착상하고 우리 식으로 창조하는 립장에서 탄산가스흡수용액려과기와 각종 랭각기청소망홀을 새롭게 제작설치하여 기대를 멈춤이 없이 매일 암모니아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있다.

특히 뇨소직장의 종업원들은 질 좋은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는것이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통하여 더 많이 배우고 실천에 구현하면서 비료생산성파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직장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카르바마트뿔프의 주파수변환기에 의한 속도조절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자금과 전력, 기계유를 절약하고있다. 그들은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직장의 중요설비들을 100% 국산화할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

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뿐만아니라 선탄, 후민산, 압축기직장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주체비료생산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고있다.

출하직장의 김미영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만든 주체비료를 싣고 협동별로 나가는 렬차들과 자동차들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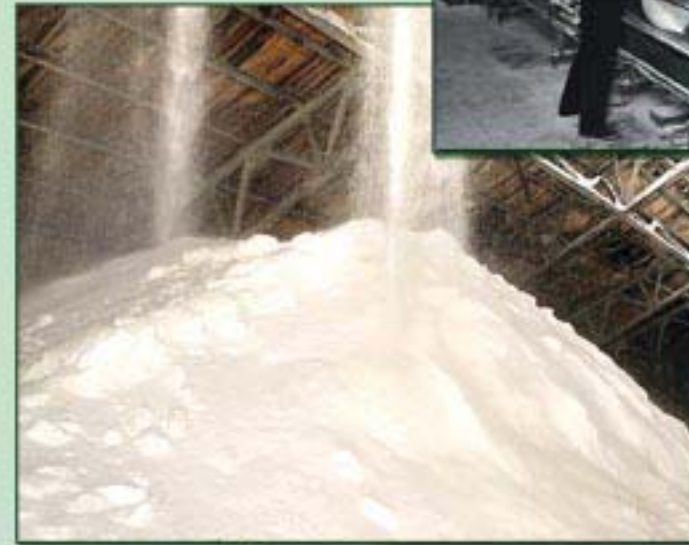
우리는 앞으로도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소중히 간직하고 주체비료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나갈것다.》라고 말하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보다

큰 성과를 확대해나가는것, 바로 이것이 주체비료생산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재간둥이들

국제아동절을 맞는 아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흐른다. 그들속에는 텔레비존으로 방영된 전국아동음악예술무대들에 출연하고 전국소묘축전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재능을 과시한 어린이들도 있다.

아래에 그들을 소개한다.

유치원의 자랑

전국아동음악예술무대는 말 그대로 재능있는 어린이들의 실력평가마당이라고 말할수 있다. 평천구역 미래유치원에 다니는 림려정어린이도 지난 3월 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자그마하고 오동통한 손으로 건반을 능란하게 다루며 피아노독주곡 《정말 고운 옷》을 연주하였다.

형상능력과 타법이 좋은 그는 심사자들과 관중들을 음악세계

에로 이끌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형상능력을 가진 그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다.

강은경교양원의 말에 의하면 려정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1년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집중력이 좋고 음악적감수성이 빨라서인지 피아노를 배운지 얼마 안되어 어려운 독주곡들을 혼자서 연주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그의 좋은 점은 악보를 본 다음 혼자서 자감상태에 빠져 머리속으로 선율을 음미해보고 건반위에 손을 올려놓는 것이다.

미래과학자거리와 함께 번듯하게 일떠선 미래유치원의 긍지스러운 첫 페이지를 장식한 려정은 유치원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만능독주가

평천구역 봉남유치원 김향미어린이는 지난 2월 설명절을 맞으며 텔레비존 무대 《행복둥이들의 노래 춤자랑》에서 가야금독주곡 《홀라리》와 피아노독주곡 《장군님과 아이들》을 연주하여 놀랄만 한 예술적기량을 보여준 재능있는 꼬마독주자이다.

꽃길같이 귀여운 손을 쥘쥘하게 놀리며 민족악기인 가야금의 뜯기, 뜨기, 튀기 등 여러 주법과 우리나라 민족현악기연주기법의 하나인 룡현을 손색없이 수행하였는가 하면 윈

손과 오른손의 민첩하면서도 정확한 결합과 반음계연주의 높은 기교로 피아노를 연주한 그를 두고 전문가들은 흔치 않은 재간둥이라고 평하였다.

향미는 음악을 몹시도 좋아한다. 그는 3살때부터 텔레비존과 방송에서 음악이 나오면 누가 대



김향미

주지 않아도 저 혼자 시창을 하고 박자를 치기도 하였다.

향미의 뛰어난 재능을 목격한 리란숙교양원은 4살인 그를 유치원으로 데려왔고 5살난 어린이들과 똑같이 가야금교육을 주었다. 향미는 가야금을 배운지 얼마 안되어 높은반어린이들의 연주수준을 따라잡았다. 그리고는 피아노도 배웠다.

민족악기인 가야금은 현악기이고 양악기인 피아노는 건반악기로서 연주수법이나 기량제고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지만

향미는 놀라운 발전속도를 보여 주면서 꼬마연주가로서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에 있는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기악부분)에서 1등을 하였으며 전국아동음악예술무대에도 출연하였다.

《호랑이화가》

《아니 이 그림을 정말 6살난 꼬마가 그렸습니까.》

이것은 지난 2월 광명성절경축 제6차 전국소묘축전장을 찾았던 사람들이 보통강구역 신원유치원 김정진어린이가 그린 연필화 《백두산호랑이》를 보고 한결같이 한 말이다. 다른 나라의 기자들도 이곳을 찾았다가 그 그림을 촬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백두산의 칼바람속에서 자기의 위상을 과시하며 서있는 백두산호랑이,

호랑이의 털 한오리한오리를 섬세하게 형상한 정진의 그림은 전문가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정진이 처음 그림을 그린것은 3살때였다. 한번은 그의 어머니가 그림책을 사주었는데 그는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을 몽땅 그림으로 그리었다. 그런데 얼마나 생동하게 그렸던지 어느것이



김정진

그림책의 그림인지 모를 정도였다는 것이다.

남경옥교양원은 정진에게서 미술의 싹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 계발시켜주었다.

정진은 특별히 호랑이를 잘 그렸다. 그는 중앙동물원을 찾아도 호랑이들의 움직임을 주의깊이 관찰했고 그림책을 보아도 호랑이가 나오는 책을 즐겨보았다. 그 나날 그의 속사지에는 성난 호랑이, 고운 호랑이, 자는 호랑이 등이 수없이 그려졌다.

속사지가 높이 쌓아질수록 그의 솜씨도 늘어만 갔다.

하여 그는 주체104(2015)년 제8차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그리기)에서 1등을 한데 이어 올해 광명성절경축 제6차 전국소묘축전에서도 금메달을 받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난 3월 정진이 그린 연필화 《백두산호랑이》를 보아주시었다.

재간둥이들인 이들은 지난 4월 소학교학생들이 되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상식

임신하였을 때 금해야 할 4가지

① 약을 망랑 쓰지 말아야 한다.

임신 초기에 테트라사이클린, 술폰아미드, 스트렙토미신, 클로람페니콜, 항암제, 여러가지 호르몬제 등을 쓰면 기형아를 낳을수 있고 태아의 중추신경계통에 손상을 줄수 있다.

불가피하게 약을 써야 할 경우에는 전문과 의사와 토의하고 될수록 적은 량을 써야 한다.

② 렌트겐선, 방사선조임을 받지 말아야 한다.

임신때에 많은 량의 렌트겐선이나 방사선조임을 받으면 태아의 50%에서 소두증(작은 머리), 척추과

렬, 뼈기형, 심한 기능부전, 팔다리결손 등이 온다.

③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린, 연, 벤졸, 수은, 비소, 아질산염 등 화학물질과 담배, 술 등은 태아의 기형, 발육지연, 지능부전을 가져올수 있다.

④ 비루스성감염을 피해야 한다.

풍진비루스, 류행성감기비루스 등은 류산, 태아의 기형, 백내장, 록내장, 귀머거리, 심장기형, 소두증, 지능부전을 일으킬수 있다.

* * *

2중영예의 붉은기학급 소년단원들



《우리교실》문학상을 받은 조금일

고 친근하게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학급동무에 대해 물어볼 때면 꼭 우리 학급 누구라고 하나같이 대답한다. 기대가 갔다.

아니게 아니라 학급에서는 서로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좋은 미풍이 발휘되고 그것이 활짝 꽃피어나 모든 학급학생들이 지덕체를 겸비하고있었다.

우연이란 없는것이다. 지난 기간 학급학생들의 실력수준은 어썬비슷하였다.

안정훈학생은 사고력이 남달리 뛰어나 공부는 제일 잘했지만 체육과 음악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런가 하면 김일철학생은 공부는 좀 약했으나 대신 체육과 악기다루기는 잘하였다. 한편 조금일학생인 경우는 전국학생소년문예작품현상모집에서 《우리교실》문학상을 수여받았지만 수학을 비롯한 다른 과목들은 떨어지고있었다.

이런 학생들과는 달리 길광웅학생은 공부와 체육을 다 잘하고 성악과 소묘 등 예술적 측면에서도 막히는데가 없었다. 소학교 3학년때에 벌써 구역적인 수학경연에서 1등을 하였고 그보다 앞서 유치원시절에는 전국적인 유치원어린이들의 노래경연에 입선하였다. 특히 소묘를 잘하여 2. 16경축 제3차 전국소묘축전에서 1등을 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아직은 열세살, 장난과 응석을 부리는 시기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본 보통강구역 경흥초급중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은 매우 의젓하고 어른스러워 보였다. 이 학급학생들에게서 좋은 점은 서로가 다정하여 모두가 형제인듯싶은것이다. 부를 때에도 동무라

결과적으로 학급의 목표는 다방면적으로 준비되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던 길광웅학생처럼 모든 학생들을 준비시키는것으로 세워졌다.

그 목표실현을 위해 학생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배워주고 배우고...

그 과정에 글뉘주라 불리우던 안정훈학생은 김일철학생에게서 축구와 수영 그리고 기타를 배우게 되었으며 일철학생은 학생대로 정훈학생에게서 학습방조를 받으며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문학일변도로 나가던 조금일학생도 광웅학생의 도움으로 버릇을 떼게 되었고 종당에는 전 과목에서 5점꼴을 피우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성장하였다.

학생들은 도덕도 아주 밝았다. 학생들은 명절 등 뜻깊은 계기때마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찾아가군 하였으며 학급에 앓는 동무나 또 도와주어야 할 동무의 일이 생기면 제일처럼 도와주었다.

한번은 독고길성학생이 수술을 받고 입원한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학급학생들은 길성학생의 회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다. 매일이다싶이 병문안을 하고 보약을 마련해준다, 입원으로 떨어진 학생의 학습방조를 해준다 하며 정말 10대의 아이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어른스럽고 기특하여 길성의 부모도 크게 감심하였다고 한다. 그 과

배운 지식을 다져나간다.



소묘축전에서 우승한 길광웅(가운데)

정은 학생들이 보다 친숙하고 다정한 동무로 되게 하는 과정이었다. 하기에 학급학생들-소년단원들은 남남이 모인 수십명의 자기 학급동무들을 너, 나가 아닌 우리 학급동무들이라고 다정히 부르게 되었고 제일로 여기게 되었다.

붉은 넥타이를 펄펄 날리며 학급의 모든 소년단원들이 힘차게 노력하여 학급은 1학년때에 영예의 붉은기학급칭호를 수여받는데 이어 2학년에 올라와서 편이어 2중영예의 붉은기학급칭호를 수여받았다.

모두가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동감들로 자라는 보통강구역 경흥초급중학교의 자랑많은 2학년 2반 학생들, 그 학생들의 담임선생님은 25살의 처녀 김봄향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상식

남도와 북도, 좌도와 우도

조선봉건왕조시기 일부 도들은 남도와 북도 또는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다.

실례로 함경도는 마천령을 경계로 하여 남도와 북도로 나누었으며(흔히 남도를 《남관》, 북도를 《북관》이라고 불렀다.) 충청, 전라, 경상 3도는 각각 좌도, 우도로 나누었다. 충청도는 금강을 경계로 그 좌안을 좌도, 우안을 우도로, 전라도는 로령을 경계로 그 남쪽을 좌도, 북쪽을 우도로, 경상도는 락동강을 경계로 그 좌안을 좌도, 우안을 우도로 나누었다.

그러나 남도와 북도, 좌도와 우도는 13도때의 함경남도, 함경북도나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과 같은 지방행정단위는 아니였다.

조국의 품에 안겨

《기슭으로만 향하는 파도가 되라!》



지충사

얼마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복부외과학강좌를 찾았던 우리는 한 소개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소개판에는 강좌의 교육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의학과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한 주요성과들이 직관적으로 반영되어있었

다. 우리는 그중에서 한 내용에 시선을 모았다.

위암의 조직형진단프로그램 《정진》을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발명권 4개, 새 기술도입증 3개, 과학기술성과등록증 3개, 새 교수방법등록증 3개, 새 기술전람회 금메달 2개, 프로그램등록증 1개...

그 주인공이 바로 복부외과학의 권위자인 강좌장 교수 박사 지충사이다.

그와 17년을 함께 일하는 리대선은 《강좌장 선생은 나이 일흔이 넘었지만 새 의학과과학기술탐구와 외국어학습, 컴퓨터실기 등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미처 따르지 못할 정도이다. 나는 박사원 시절 우리들에게 <쉬임없이 기슭으로만 향하는 정열의 파도가 되라!> 던 강좌장선생의 말을 잊지 않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실지 그는 대학을 졸업한 때로부터 40여년세월의 하루하루를 언제나 불타는 정열과 창조로 출달음쳐왔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로!

그 나날속에 후대교육사업과 치료예방사업에서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위 및 십이지장궤양에 대한 미주신경절단술과 문맥압한진

증에 대한 식도리단술을 비롯하여 위암, 간암, 췌장암 등 각종 질병들을 치료하는데서 그가 처음으로 개척한 치료방법만도 여러건, 수술건수만 해도 근 1만건, 《조영일의학소사전》, 《외과전서》를 비롯하여 국보적 가치가 있는 근 40건의 교과서와 도서들을 집필, 의학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권위있는 박사들을 양성...

보람차고 긍지에 넘친 나날에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과 높은 급의 훈장들도 받아안았으며 국가적인 대회들에 참가하는 영예도 지니었다.

세월은 그의 머리에 흰서리를 엮고 얼굴에 주름을 남겼지만 결코 그전날의 쾌기와 정열만은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몇년전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9(2010)년 11월 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시하수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자기의 연구과제로 정하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아직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것으로 하여 모두가 저어하는 연구과제였지만 그는 주저없이 맡아안았다.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논문지도,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비롯한 바쁜 속에서도 째째 시간을 내어 자료작업을 진행하였다. 하나의 새 자료를 얻기 위해 인민대학습당과 의과학원 등 자료기지들을 찾아 그가 걸은 길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연구사업으로 낮과 밤을 이어가던 나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속에 고삿끈은 16살의 홀몸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 자기를 당시의 남포고등학교와 평양의학대학에서 공부시켜주고 오늘에로 내세워준 나라의 고마움이었다. 마음속에 간직한 그 소중한 체험들과 높은 의과학성파로 조국에 이바지하려는 보답의 마음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성공으로 한걸음한걸음 떠밀어주었다.

마침내 새로운 치료방법을 찾아낸 그는 어느날 급성으로 들어온 한 환자에 대한 수술을 하게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되었다. 새 방법에 의한 첫 수술의 긴장한 시간이 흘렀다. 오랜 나날 바쳐온 그의 헌신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병원에 들어올 때에만도 위급하던 환자가 수술을 받은 후 병상래는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십여일이 지나서는 본래의 건강을 되찾았던것이다. 여기서 신심을 얻은 그는 실천을 통해 확증된 결장암에 대한 복강경하결장절제술을 더 발전완성시켜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회복시켰다.

그는 말하였다.

《눈앞의 성과에 만족해한다면 세계의학과학의 첨단을 돌파할수 없다. 오직 기습으로만 향하는 정열의 파도가 될 때 우리는 세계를 앞설 수 있을것이다.》

현재 강좌장의 사업과 함께 조선의학협회 북부외과위원회 위원장, 보건성 북부외과연구학회 위원장, 국가학위학직심의위원회 위원직을 력임하고있는 지층사이지만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2건의 치료방법을 개척하기 위한 길에 또다시 나섰다.

북부외과학의 첨단돌파를 위한 그의 정열의 파도는 그칠줄 모른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중국 길림성 길림시 창영구 세기신촌소구 박옥희동생 앞

화목한 우리 가정

동생, 밤이 깊어가요.

내옆에서 어리광을 부리던 손자 정규도 그렇고 며느리도 깊은 잠에 들었건만 왜서인지 나는 잠이 오지 않는구만.

몇해전 평양에서 동생과 만나던 때의 일이랑 그리고 해동동생과의 상봉이랑 눈앞에 선한게 어디 잠을 이룰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 만나도 보고 편지도 오고갔지만 왜 그런지 자꾸 보고싶구만.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몹시 궁금하오. 해금, 해규, 해선동생들도 다 잘 있으리라고 보오.

동생, 나와 나의 가족은 다 잘 있소. 동생이 보내준 편지를 받아보았소. 편지에서 동생은 이 언니가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걱정하였는데 그 심정이 리해되오. 내가 살붙이 하나 없이 조국에 홀로 있으니 십분 그럴수 있다고 보오. 하지만 걱정하지 마오. 며느리와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다 그 편지를 보며 말했소.

동생이 멀리 미국땅에서 살다나니 조국의 현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해 다 몰라 그럴것이라고 하며 동생이 걱정하지 않게 나를 더 잘 모시겠다고 하더구만. 실지 그 애들이 나에 대한 효도가 참 지극하오. 오죽했으면 마을사람들까지 그 애들을 칭찬하겠소.

동생, 동생도 아다실이 내가 조국에 귀국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다나니 부모없는 총각애와 처녀애를 데려다 키우지 않았소. 난 한번도 그들이 남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소. 모든 어머니



니들이 다 그러하듯이 난 그저 그 애들을 친자 식처럼 키우느라 애썼을뿐이오. 그런데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글썽 온 동주민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또 나를 효도하느라 수고한다고 늘 애들을 칭찬해주고있구만. 정말 그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곤 하오. 다 사람을 제일로 여기고 그로부터 발양되는 미풍을 적극 내세우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겠나.

동생, 내 비록 동생들과 떨어져 홀로 조국에와 살고있지만 언제나 외로움이나 걱정을 모르고 오히려 이런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살고있네. 그러니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게. 요즘은 손자 정규일때문에 마음이 둥 떠서 시간가는줄도 모르겠네. 그 녀석이 씨름을 잘하여 시적으로 1등을 하고 또 도에 올라가서는 2등을 하더니 이제는 어벌이 커져서 전국적인 경기에서 우승해보려고 훈련에 열중하고있다네. 난 그 애 뒤바라지에 여념이 없네.

동생, 이제는 내 나이 80이여서 그전같지 않지만 난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한 일뿐아니라 마을을 꾸리고 또 나라를 위한 애국사업에 남은 생을 다 바칠 결심이네. 그게 이 나라에 사는 공민의 의무가 아니겠나.

동생, 두서없이 이야기했다고 욕하지 마오. 그저 남남이 모여사는 우리 가족이지만 더없이 화목한 나의 가족임을 동생에게 보여주려고 하였을뿐이오. 그런 마음을 안고 여러번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잘되었소. 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국에 있는 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오. 언제든 그런 날이 꼭 있을것이라고 나는 믿소.

동생, 할 말은 많으나 이만 끝맺으려 하니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에 특별히 류의해주오. 그럼 온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면서.

강원도 원산시 덕성동 33인민반
박규이로부터

덕천사람들의 숨결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가 들린 곳은 덕천시이다. 덕치대에 강을 낀 곳이라고 하여 《덕천》으로 불리웠다는 고장, 시는 시원하게 뻗어간 도로 량옆으로 다층살림집과 공공건물, 문화후생시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공장, 기업소들이 대동강을 사이 두고 둘러앉아있었다.

우리와 만난 시의 일군은 옛날에는 이곳에 길 하나 없었고 사람 못살 곳이여서 여기에 정배살이를 오던 량반들이 덕천이 멀다하게 쳐다본다는 속담도 나오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러하였던 이곳을 보다 잘 꾸려가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곳에서 만날수 있었다.

새로 꾸려진 미래원앞에서 화단에 꽃을 심던 덕성동주민 김애화는 미래원을 온 시가 떨쳐나 완공하였다고 하면서 그래서 집에서 가꾼 꽃을 떠다 심고있다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그는 덕천시 은덕유치원 원장사업을 하고있었다. 그가 사업하는 유치원에도 가보았는데 안팎으로 멋쟁이였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성악과 바독신동들이 많이 자라고있었다. 원장은 대대로 덕천에 태를 물고 살아오는 로동자집안에서 자기는 유치원 원장사업을, 남편은 병원원장사업을 한다고 궁지에 넘쳐 말하면서 후대들이 마음껏 나래를 펴도록 제고장을 제 손으로 더 잘 가꾸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주민들이 즐겨찾아온다는 덕천국수집이였다. 주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와 덕천직물공장 로동자들이 많이

온다고 한다.

식당책임자 김옥경은 덕천국수는 이곳 로동자들이 《덕천랭면》이라 부르며 누구나 즐겨찾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일이 바빠 못 올 때에는 그들을 위한 현장봉사와 함께 경제선동을 한다고 하였다. 덕천시에서 제일먼저 썬는것은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와 덕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이며 예로부터 이름난 향라의 질과 생산성을 배로 높이고있는 덕천견직공장도 놓쳐서는 안된다는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우리가 일본에서 살다가 귀국하여 은덕동에서 사는 중앙은행 평안남도 덕천지점 부원인 김수남의 가정을 찾았을 때였다. 마침 그날은 그의 생일이여서 집에는 형인 덕천기술대학 교원 김영일과 누이동생인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부원인 김영희 등 온 집안식구가 모여있었다.

덕천에 와서 사는 재미가 어떤가고 묻는 우리에게 자기들은 모두 대학까지 나와 일군들로 자라났다고 하면서 키워준 나라의 은덕을 잊지 말고 보답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하던 부모님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일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누이동생이 다니는 기업소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는데 별로 큰것이 아니지만 보람을 줄 마음으로 자기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기술혁신안을 가지고 갈겸 또 지원사업을 한바탕 할겸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로 향하였다. 그때 함께 동행하던 시의 일군은 앞에 보이는 산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이 산에서 잘 싸운 인민군군인들의 공로를 평가하시여 산의 이름을 《승리산》으로 부르도록 하시는데 대하여서와 그리고 승리산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석기시대의 고인과 신인의 화석이 발견된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그런가 하면 김영일과 김영희는 그들대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 대한 사랑을 한껏 늘어놓았다.

정말 그랬다.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참으로 승리적인 혁신을 창조하고있었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100% 국산화된 새 형의 자동차를 개발하였다.

자동차설계자의 한사람인 현창연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새형의 자동차를 개발한 우리 덕천로동계급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정말 그 승리의 희열로 아무리 일하고 또 해도 힘이 부쩍부쩍 솟구침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심정은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만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자기들을 환영하고 지원해주는 온 덕천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솟구치고있다고 하였다. 울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산자대중과 한덩어리가 된 수많은 덕천사람들이 자기들의 삶과 행복의 터전을 제손으로 가꾸며 승리의 숨결높이 더 큰 승리를 안아올것이라는것을 확신할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은덕유치원에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확립된 덕천시인민병원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





이역땅에 굽이치는 흙모의 파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흙모와 칭송의 열기가 굽이치는 가운데 지난 4월 중국에서는 재중동포들의 태양절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진행된 경축행사에는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 산하조직대표들, 동포예술인들, 심양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영사관 일군들,

길림시에 살고있는 재중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린 재중동포들은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를 진행하였다.

최수봉부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수십성상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었다고 격찬하면서 수령님처럼 독창적인 사상과 탁월한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며 20세기를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신 걸출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는 일찌기 없었다고 토로하였다.



태양절경축 사진 및 도서전시회장을 돌아보는 동포들

불멸의 꽃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를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한 재중동포들은 불멸의 꽃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와 사진 및 도서 전시회, 예술공연을 통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을 뜨겁게 돌이켜보았으며 그이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료녕지구협회에서 결의편지채택모임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한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 료녕지구협회, 중남지구협회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결의편지채택모임,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지난 4월에 재중동포들이 진행한 태양절경축행사들은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여 강성한 오늘의 조국이 있고 사상도 풍모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태양조선은 영원히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될 것이라는것을 절감하게 하였다.



끝없는 충정의 마음



우리는 4월의 화창한 봄날에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경축하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길림육문중학교를 찾은 재중동포들과 함께 태양절을 경축하고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와 사진 및 도서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나는 이 행사들에 참가하여 민족의 태양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재중동포들의 끝없는 충정심, 흠모심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시기 위하여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나라의 도처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들을 창조하고계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고국은 경제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더 발전할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고국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겠습니다.

단동조선족기업가협회 부회장 심청순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태양절을 경축하여 진행된 공연



칭송의 노래 울려 퍼진 축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주체71(1982)년에 자기의 첫막을 올린 때로부터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30번째의 차수를 아로새기였다.

지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는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진행되었다. 축전에는 로씨야, 쿠바, 페루, 말레이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중에서



시아, 몽골, 웰남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름있는 국제콩쿨수상자들, 관록있는 명배우들로 구성된 예술단, 교예단들과 해외동포예술단들이 참가하였다.

공연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였으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전쟁과 예속이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해나가는 조국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된 사상예술

성이 높고 민족적색채가 짙은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이 진행된 봉화예술극장, 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 모란봉극장,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음악당, 평양교예극장을 비롯한 공연장소들은 편일 수많은 관람자들로 차고넘쳤다.

특히 재중조선인예술단, 재일조선인예술단, 재미조선인예술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린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재중조선인예술단에서는 혼성중창 《우리의 김정은동지》, 무용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로 축전 무대를 장식하였다.

특히 최경호동포가 부른 노래 《조국과 나》, 《불타는 소원》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그는 이 노래들은 자기의 진정이 담기고 심정을 반영한 노래이라고 하면서 이 노래들을 축전무대에 내놓기 위해 지난해부터 성의있는 준비를 하여 왔다고 한다.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언제나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고 있는 재미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도 무용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소해금과 무용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남성독창 《내 마음 철새가 되지 않으리》, 《이역의 아리랑》 등의 종목들을 무대에 올려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재미조선인예술단은 관현악 《발걸음》, 교향곡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중에서 제4악장 《우리는 맹세한다》를 비롯한 다양한 기악곡들에 대한 지휘로 공연무대를 장식하였다.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터친 태양찬가, 위인흠모의 송가들은 평양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재미조선인예술단 지휘자의 관현악지휘와 소해금독주의 한 장면



조선의 권법에 대하여 (3)



재중조선인예술단의 공연중에서



더 높이 올려피질것이다

이번 제30차 4월의 봄 친선에 술축전무대에 나는 무용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내놓았다. 물론 나혼자 안무한것이 아니다. 고국의 피바다극단의 이름있는 안무가들과 함께 연변에서 창작한것이다. 그러니 오래전부터 이 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해왔다고 말할수 있다. 내가 이 노래를 상으로 잡은것은 지금 고국에서 이 노래가 널리 불리워지고있기때문이다. 누구나 이 노래가 나오면 따라부르고 박수를 치고있다. 그것은 이 노래가 고국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잘 담고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무용배우들이 노래가사에 있는바와 같이 한생토록 대를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받들어갈 재중동포들의 충정의 마음을 우아

하고 세련된 기량과 연기로 형상하도록 작품지도를 하였다. 공연 첫날이 다르고 둘째날이 달랐다. 날이 갈수록 배우들이 작품의 상이 안겨오게 훌륭한 화폭을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우리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하지만 박수갈채는 우리만 받은것이 아니다. 축전에 참가하여보니 해외동포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예술인들도 하나같이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흥미의 마음이 짙게 어린 성의있는 작품들을 축전에 내놓았다. 정말 만민이 터치고러치는 위인칭송의 메아리,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소리는 앞으로 더 높이 올려피질것이다.

재중조선인예술단 김영화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방은심



첫 통일국가 고려,
고려가 국토를 통일할수 있는것은 고구려를 계승하였기때문이다.
1 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고구려권법은 고려 시기에 이르러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고려시기의 권법-수박

고려시기에 들어와서 조선의 권법은 《수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수박희라는 무술체육종목이 기록되어있다.
고려시기의 권법인 수박에 대해 논하기 앞서 《수박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기로 하자.
《고려사》에는 수박희외에도 등장희(막대기기술), 격구희(격구경기), 각저희(씨름경기) 등과 같이 《희》(놀음 희)자를 무술체육종목 이름의 뒤에 붙여 많이 쓰고있다.
그러면 고려사람들은 왜 《희》자를 함께 썼겠는가.
15세기 역사기록에 고려에서는 《일상적인 유희를 두고 싸움을 익힌것》(《세종실록》 7년 4월 무오)이라고 써여져있다.
그것은 고려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는 놀음(경기)이자 곧 무술훈련이였기때문이다. 그리고 《희》라는 글자에는 원래 재주를 거론하는 뜻도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수박희는 수박경기라고 해석할수 있으며 그렇게 해석하여야 해당 기록을 정확히 이해할수 있다.
지금까지 고려시기의 수박에 대하여 이전시기와 같이 글자대로 수박(손치기)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이 시기 수박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해석이라고 볼수 없는것이다.
고려시기의 수박은 고구려의 권법과 마찬가지로 손으로만 치는것이 아니라 차기와 막기를 겸한데다 새로 받기까지 받아들인 실로 그 수법이 다양하고 풍부한 무술이였다.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고려사람들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술체육분야에서도 고구려의 권법을 계승발전시켜 수박경기를 하였다.
의종(1147년-1170년) 말년 보현원에서 수박경기, 무신정권시기 도방(무신집권자들의 사영기관) 3번, 6번들의 수박경기 그리고 송나라장사들과의 국제적인 수박경기 등이 대표적인것들이다.
수박경기가 광범히 진행되는 과정에 수박은 공격과 막기, 손치기와 발길질 등이 배합된 속도가 빠른 세련된 무술체육으로 발전하였다.
발길질은 앞차기, 뒤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등 여러가지로 발전하였으며 손치기는 오른주먹치기, 뒤효주먹치기, 손칼(수도)치기, 팔굽치기, 손바닥치기 등 대상의 자세와 경우에 따라 차기와 치기의 수법이 다양해졌다.
수박은 치기(지르기)와 막기, 차기뿐아니라 머리받기까지 겸하게 되었다.
고려의 수박이 발길질이나 머리받기까지 겸한 체육종목이었다는것은 고려사람들이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것을 가지고 잘 알수 있다.
역사에 기록된 고려의 무관들이었던 한희유와 위득유간의 싸움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위득유는 무술에 능한 한희유의 가슴을 두번씩이나 머리로 들이받았는데 한희유는 주먹질로 위득유의 공격을 가까스로 물리쳤다고 한다.(《고려사》권 104렬전 김방경)
이것은 바로 고려무관들속에서 머리받기도 많이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또 군사의 매개부대들에 수박을 하는 무사들의 집단이 있고 《5병수박》이라고 부르는 분화된 수박이 있을 정도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었다. 이런 조건은 수박의 내용과 방법들이 구체화되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하였다.
역센 육체와 세련된 동작 그리고 완강한 투지가 없이는 진행할수 없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무술체육인 수박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정에 더욱 발전되었다.

본사기자 강진성

보석으로 그린 그림



얼마전 우리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 하나의 흥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 세멘트생산자들이 하는 말이 조선보석화의 고향이 바로 자기네 상원땅이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리유는 이러하였습니다.

30년전의 일입니다.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의 한 미술가가 새로 건설되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현실체험의 나날을 보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우연히 광석을 실은 대형화물자동차들이 무수히 오고가는 도로 한가운데서 그 무엇인가 해빛에 반짝거리고있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돌가루였습니다. 여러가지 색깔을 띤 돌들이 차바퀴들에 수차례나 밟히어 가루가 되었는데 그것들은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서로 자기의 원색을 살리며 조화롭게 어울려있었습니다. 순간 미술가는 여러가지 색깔의 천연돌을 가루내어 안료를 대신하면 독특한 회화적형상을 창조해낼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발한 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동자들이 그 미술가의 환상에 나라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를 비롯한 미술전문가들은 우리 나라에 흔한 여러가지 색깔의 돌을 리용하여 새로운 미술형식을 개척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갔습니다.

주체77(1988)년 10월 중국에서 열린 《88베이징국제발명전람회》에 《변색하지 않는 가루재료에 의한 미술작품형상방법》이라는 설명문을 달고

출품된 《비둘기춤》이 세계 수많은 미술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을 놀래웠으며 이 전람회의 금메달과 상장을 받았습니다.

만수대창작사에서 새로운 안료로 형상한 미술작품들은 처음에는 《석분화》로 불리우다가 1990년대 초에 《조선보석화》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조선보석화의 이름속에는 천연보석이나 인조보석을 리용하여 현실을 평면에 조형적으로 그리는 회화의 형식이라는 의미만 있는것이 아니라 화면형상이 보석처럼 찬연한 광택을 내어 보는 사람들에게 특이한 정서적매력을 준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조선보석화의 특성에 대하여 보기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은 불변성입니다. 불변성은 안료의 특성과 관련되어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신석기시대 초기 인간이 색을 리용할 때에는 광물과 식물에서 색을 채취하였는데 색깔이 오랜 세월 사람들의 생활과 뿔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공업적방법으로 쉽게 생산은 하였지만 변색을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보석화는 여러가지 색깔의 천연보석가루를 안료로 리용하기때문에 그 색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어떤 색깔도 다 형상할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미술분야에서 세기를 두고 내려오면서 해결하려던 변색문제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조선보석화의 특성은 다음으로 조선화의 선명하고 간결한 화법과 민족공예의 정교

하고 섬세한 기법들을 바탕으로 하고있다는것입니다.

조선보석화는 색재료나 형상도구, 형상방법에서 조선화와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있지만 선묘법, 구도법, 색묘법, 명암법과 물골기법, 세화기법, 우림기법 등 조선화의 고유한 화법, 기법들은 조선보석화가 아름답고 우아하며 매혹적인 화면형상들로 창조될수 있게 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었습니다.

조선보석화의 화면바탕은 인조가죽, 늪판, 수지판, 철판, 방수처리한 나무판 등을 리용합니다.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점착제를 끌고루 뿌립니다.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조국의 여러 미술창작기지에서는 조선보석화에 의한 국보적인 명화들이 창작되고있으며 조선보석화작품들은 자그마한 기념품으로부터 대형작품에 이르기까지 세계 미술애호가들과 해외동포들의 관심을 모으고있습니다.

보석으로 그린 그림!

내 조국의 돌 하나도 귀중히 여기는 애국의 뜻을 가슴속에 보석같이 간직하고 사는 우리 인민이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조선보석화라는 미술형식을 창조할수 있었고 그것이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으로 세세년년 전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조선보석화작품의 일부



지리학자 량성지

량성지(1415년-1482년)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학자이며 정치가이다.

전라도 남원에서 량구중의 셋째아들로 태어난 그는 27살때에 문과에 합격한 후 집현전 학사, 리조판서, 홍문관 대제학 등의 벼슬을 력임하면서 나라의 과학문화발전과 국방력강화에 이바지하였다.

력사, 지리를 비롯하여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있던 그는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정린지, 신숙주 등과 함께 당시 조선봉건왕조에서 진행한 여러 도서편찬사업과 출판사업에 참가하였다.

15세기에 만들어진 지리책이나 지도에 그가 관계하지 않은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히 《고려사》의 지리지부분, 《팔도지리지》, 《동국여지승람》과 봉건국가의 군사용지도인 《방연변수도》 등을 만드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사업들은 모두 조선봉건왕조가 중앙집권적통치제도를 강화할 목적에서 진행한것이였으나 그가운데는 조선봉건시대 지리 및 지도학의 성과를 담고있는것들도 있다.

그는 또한 《주부군현각도》, 《경성도》 등 당시 조선지도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여러 지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량성지는 봉건시대 조선의 지리학자였으며 그의 이 부분의 저작은 중세에 이룩된 우리나라 민족문화유산에서 중요한것의 하나로 된다.

그는 당시의 량반출신학자들가운데서 진보적인 인물로서 군사, 경제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봉건제도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여 국력을 강화하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데 대한 창발적의견들을 담은 개혁안을 봉건왕정에 여러차례 제출하였다.

문화부문에서 그는 봉건통치에 참고할수 있는 책들을 국가적으로 수집, 보관할데 대하여 적극 제기하였다. 이 제의에 의하여 홍문관(왕실도서관)이며 봉건유교사상의 선전을 맡은 중앙관청)이 새로 설치되었다. 그는 문학가로서도 활약하였다. 그 모든 공로로 하여 그는 봉건정부로부터 공신칭호와 남원군의 작위를 받았다.

문집 《눌재집》에는 그의 정치, 경제, 군사적 견해에 관한 자료와 시문들이 들어있다.

* * *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7)

- 대성산성의 남문 -

평양시에 있는 력사유적을 찾아 우리는 대성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고구려시기 외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쌓은 큰 성이 있는 산이라 하여 《대성산》으로 불리우는 산은 사철 푸른 소나무숲과 함께 이채를 띠는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여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온 산을 덮고있는 사철 푸른 소나무들로 하여 이른봄에도 늦은가을에도 한겨울에도 변함없이 푸르게만 보여 옛날부터 대성산의 경치를 룡산만취라고 하였으며 평양8경의 하나로 꼽았다고 합니다.

대성산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것은 고구려 대성산성의 남문입니다. 주체67(1978)년 9월 옛 모습대로 복구된 남문은 대성산의 풍치와 민족적정서를 더욱 돋구어주고있습니다.

대성산성 남문은 고구려가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이전에 세운것입니다.

남문은 튼튼하게 쌓은 축대, 그 량쪽에 잇달린 적대, 축대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남문의 높이는 19. 5m에 달하며 남문의 축대와 적대는 다같이 네모나게 다듬은 화강석을 차곡차곡 포개어쌓았습니다. 돌들은 세로방향으로 통이음줄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고 위로 올라가면서 차츰 작은것을 놓았습니다.

축대와 적대의 바깥면은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으면서

그 밑부분은 계단모양으로 쌓았는데 축대의 북판에는 〓형의 문길을 냈습니다. 축대와 적대의 옷돌레에는 평가퀴를 쌓고 그곳에 낸 활구멍과 타구로 적을 사격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축대우로는 그 뒤쪽 량면에 낸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축대우에 세운 문루는 정면 5칸(17. 15m), 측면 2칸(6. 3m)의 2층건물입니다. 굽적하게 세운 배부른기둥은 안정해보이며 안쪽모서리부분에 세운 4개의 기둥은 곧추 뻗어올라 2층기둥까지 곁하고있습니다. 기둥우에 엮은 두공은 첨차(동방 목조건축에서 두공의 주요부재)를 두단 고인 이른바 공아형식의 두공이며 두공과 두공사이에는 활개모양의 사이두공을 소로에 받쳐놓았습니다.

내부는 통천정으로 시원하게 되어놓았는데 대들보우에 대공을 세운 다음 중보를 놓고 거기에 다시 대공을 세워 마루도리를 받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보입니다. 우진각형식의 지붕은 장중한 맛을 돋구고있으며 고구려의 무늬기와를 잇고 룡마루랑끝

과 아래지붕 추너마루 옷부분에 치미를 놓아 아름답게 장식하였습니다. 건물안 한가운데에 한 단 높은 마루를 놓고 란간을 둘렀습니다.

문루안팎에는 화려한 단청을 입혔는데 단청은 붉은색의 기둥으로부터 시작하여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차츰 더 밝게 하여 지붕밑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단청무늬의 기본은 녁쿨무늬, 구름무늬, 불꽃무늬 등이며 화살을 메운 활을 그린 기둥머리초, 5일짜리 서까래마구리무늬도 좋지만 평판방안쪽에 그린 단청그림은 성문에 어울리게 특색있게 되었습니다. 평판방안쪽의 남쪽에는 갈, 창, 방패를 든 보병들, 갑옷을 입은 개마무사들이 씩씩하게 행진하는 장면을 그렸고 북쪽에는 말탄 사냥군들이 달리면서 범과 사슴 등을 사냥하는 웅맹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고구려문화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되는 대성산성 남문은 국보로서 잘 보존되고있으며 인민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되고있습니다.

본사기자 유선화



우리 민족끼리와 조국통일

조선이 북과 남으로 갈라진 때로부터 어느덧 7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장장 70여년세월 통일을 바라고바라온 조선민족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준것은 6. 15북남공동선언이었다.

겨레에게 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민족사적사변인 북남수뇌상봉에서 채택된 6. 15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에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려는 굳은 의지,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피줄, 하나의 민족으로서 온 겨레가 굳게 손잡고 단결할데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심장을 쿵쿵 울려주는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립장에서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갈데 대한 사상이 관통되어있는 우리 민족끼리앞에 온 민족은 당장 통일이 오는것처럼 가슴을 들먹이었고 통일을 위한 길에 뿔쳐나설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돌이켜볼수록 우리 민족끼리는 전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기치였다.

조국에서의 전민족적인 대단결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80년전인 주체25(1936)년 5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본의 군사적강점으로 부터 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였다. 선언에서 제시된 민족대단결사상에 따라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이 조국해방이라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조국광복회에 망라되였다. 조국광복회는 일제의 군사적통치를 뒤집어엎고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민족대단결의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후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누구나 새 조선건설에 이바지하였으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

는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한결같이 뿔쳐나섰다.

민족대단결의 사상은 조국통일3대헌장(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으로 이어져 사상과 리념,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줄기차게 벌어졌다.

주체89(2000)년 6월 나라가 분열되어 처음으로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상봉은 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겨레의 념원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다. 더우기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나갈것을 엄숙히 약속한 6. 15북남공동선언은 온 민족을 통일을 위한 길로 힘차게 떠밀었다.

선언의 발표로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는 일대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었으며 삼천리강토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진감하는 가운데 북과 남사이에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 불신과 반목, 대결의 력사가 흐르던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가 흐르게 되었다.

지난 10여년간에 걸친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6. 15공동선언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를 명시한 북남관계발전의 초석이며 조국통일의 리정표라는것을 똑똑히 새겨안게 되었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이려는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6. 15공동선언을 반드시 리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기어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의지를 안고 오늘도 온 겨레는 통일애국의 길에 서 있다.

본사기자 한신애

자멸을 초래한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년초부터 조선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수소탄시험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완전성공으로 행성을 뒤흔들어놓으며 진보적인류와 온 겨레를 무한한 감격과 기쁨의 열풍속에 휩싸이게 하였다.

지난날 총대가 약하여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강탈당해야만 했고 침략자들이 도발한 전쟁에서 총대가 부족해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피맺힌 과거가 응어려져있는 우리 민족이기에 수소탄보유국, 우주강국의 일원이라는 그 자부만으로도 가슴이 넓어지고 걸음도 당당하게 되었다.

하기에 민족사적인 이 사변 앞에서 비록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은 서로 달라도 조선민족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지어 불미스러운 과거로 떼뺄수 못한 사람들까지도 경탄하며

말없는 축하를 보내었다. 그러나 유독 남조선피뢰들만은 정반대였다.

수소탄시험의 폭음이 마치 사형선고처럼 들리고 《광명성-4》호의 황홀한 비행운이 하늘가에 새겨지자 남조선피뢰들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남조선이 공화국의 핵과 미싸일의 《1차적인 피해자》이며 《막중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린다는 수작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미국과 한쪽이 되어 형형색색의 대결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었다.

온 남조선을 미국의 핵무기고로, 핵전초기지로 내맡긴데 대해서는 아닌보살하고있는 남조선피뢰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공화국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제재》를 청탁하는데 피눈이 되어 돌아쳤으며 이른바 《북핵 및 미싸일위협》을 떠들며 극악한 동족대결악

법인 《북인권법》과 《테로방지법》을 조작해내고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맥인 개성공업지구의 숨통마저 완전히 끊어버리는 망동을 부리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함께 미본토핵무력까지 동원하여 공화국을 선제공격한다는 《맞춤형억제전략》, 북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노린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 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기지들을 공격하기 위한 도발적인 《4D작전계획》에 맞도장을 찍고 《키 리졸브》, 《독수리 16》 등 각종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이 합동군사연습에서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체제붕괴》를 실현해보려고 한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참수작전》을 포함한 특수전에 인입할 특공대병력을 군사분계선가까이에 증강

배치해놓았을뿐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일본본토와 오키나와, 괌도를 비롯한 공화국의 주변기지들과 서태평양수역에 술한 침략무력을 전개해놓았다.

미제침략군 제3해병원정려단을 비롯하여 해외침략에서 악명을 떨쳐온 부대들이 훈련에 인입되고 련합도하훈련, 련합항공타격훈련 등 모든 훈련내용이 선제공격개념을 적용하기 위한데로 집중된 사실은 합동군사연습의 호전성과 위협성을 더욱 부각시켜주었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피뢰들로 하여금 미국을 겨냥하고있는 공화국의 징벌의 조준경안으로 제발로 게바라들어오게 하는 자살적인 망동짓을 하게 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피뢰들의 도발적망동으로 하여 현시기 북남관계는 사상 류례없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수수방관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

르렀다. 물론 이 사태는 결코 우발적인것이 아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3년간 남조선피뢰들은 가소롭게도 《신포》의 간판을 내걸고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온갖 반공화국도발책동에 피를 물고 날뛰었다.

그리고 입만 벌리면 《북의 체제가 불안》하다느니 뭐니 하며 공화국의 제도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한편 공화국은 물론 남조선인민들마저도 반대해나선 《북인권법》을 끝끝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무엄한짓까지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반공화국모략단체들에 술한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을 반대하는 삐라살포소동을 벌리고 모략나발을 끊임없이 불어대게 하였으며 그로 하여 북남관계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험악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라는것까지 조작하여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통일을

이룩하자.》고 고아대며 《체제통일》실현에 광분한 피뢰들은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에 의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위업이 개선될 기미가 보일 때마다 당치 않는 나발을 불어대며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뿌렸는가 하면 터무니없는 날조설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헐뜯으면서 불신과 대결을 극도로 격화시키었다.

그것도 모자라 《북인권법》이요, 《테로방지법》이요 하는따위를 만들어낸 피뢰들이 해외에서 일하던 공화국공민들을 백주에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가는 인권란도질행위, 테로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함으로써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파국에 몰아갔다.

결국 남조선피뢰들은 자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놓았다.

본사기자 강경수

상 식

조선봉건왕조시기 명필

조선에는 이름난 서예가명필이 많았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만도 수많은 명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물로는 리용(호 비해당), 양사언(호 봉래), 한호(호 석봉), 김구(호 관복재), 김정희(호 추사, 완당) 등을 들수 있다. 그중에서 널리 알려진 명필은 양사언, 한호, 김정희이다.

양사언은 여러가지 서체가운데서

특히 초서에 능하였고 한호는 모든 서체에 막힘이 없었으며 김정희는 《추사체》라는 자기의 독특한 서체를 이루어놓았다. 양사언은 천하절승 금강산을 열렬히 사랑하고 거기에 많은 필적과 일화를 남긴것으로 하여 이름이 났는데 《봉래》라는 그의 호는 금강산의 여름철이름을 딴것이다.

한호는 조선봉건왕조 후기에 널리

리용된 어린이들의 한문학습을 위한 첫 교재인 《천자문》(석봉천자문)을 쓴것과 함께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글씨공부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것으로 하여 널리 이름이 났다.

그리고 김정희는 서예에 뛰어났을뿐아니라 고고학과 금석학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한것으로 하여 소문이 났다.

* * *

-긋하고싶어도 맘머느리 춤추는 꼴 보기 싫어 똥한다

지난날에: 무엇을 하려고 하여도 미운 사람이 끼여들어 기뻐하는 꼴을 보기 싫어 못하겠다는 뜻으로 쓰이던 말.

-개 미워서 낙지 산다
개가 미운데로부터 개가 좋아하는 뼈다귀를 사는것이 아니라 뼈가 없는 낙지를 산다는 뜻으로 미운 사람에게 그가 제일 싫어하는것을 고의적으로 주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눈에 (든) 가시
몹시 미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조선속담 (미움)

이르는 말.

-머느리가 미우면 발뒤축이 닭알 같다고 나무란다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없는 허물도 억지로 만들어내어 나무란다는것을 이르는 말.

-똥난 색시 달밤에 샷샷 쓰고 나선다

미운자가 점점 더 보기 싫은것만 하는 경우에 욕으로 이르던 말.

-미운 벌레가 모로 긴다

① 밍게 보이는자는 하는짓마저 눈에 거슬리게 보인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② 미운자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더 추악하게 보임을 이르는 말.

-미운놈이 도리질한다

미운놈은 재주를 부려도 그것이 오히려 더 밍게 보인다는것을 이르는 말.

-미운 일곱살

일곱살때가 말을 제일 안들을 때라는것을 이르는 말.

* * *

최악의 역사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새로운 대륙의 발견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것은 침략과 약탈, 피로 얼룩진 역사만을 기록해온 아메리카제국을 두고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조선인민앞에 씻을수 없는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미제는 침략선 《서면》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세기반동안이나 조선을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이다.

특히 피에 주린 살인마로서 미제침략자들의 본성은 저들이 도발한 지난 조선전쟁(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시기에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죽이라.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고 한 당시 미8군사령관이었던 워커의 살인 명령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이 도발한 지난 조선전쟁은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대학살 전쟁이었다.

미제는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공화국북반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중적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황해남도 신천지구에서만도 군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3만 5 000여명의 인민들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피에 주린 야수들은 인민들을 학살하는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제는 세군무기와 화학무기사용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쟁전기간 조선은 미제의 생화학전의 마당으로, 그 첫 시험장으로 되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조선에서 원자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무기도 사용할것이라고 공공연히 선포한데 따라 미제 침략자들은 생화학전만행에 달라붙었다. 그리하여 1950년 12월 중순부터 1951년 1월까지 미제 침략자들이 쫓겨난 평양시, 평안남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등의 지역에서 전염병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1951년 4월에 이르러서는 발병건수가 3 500건이상에 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또한 천연두와 함께 류행성출혈열병원체도 마구 뿌리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당시 세계적 물의를 일으킨 유명한 손오열사건이 그것을 증명하여준다. 쫓겨가던 미제는 38° 선 중부이남지방

과 서울이북지방사이에 류행성출혈열병원체를 뿌려 이 지역에서 살던 수많은 주민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갔다.

1952년 1월초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수백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의 169개 지역에 연 804차에 걸쳐 각종 세균탄을 투하하였을 뿐만아니라 화학무기들도 대량적으로 사용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야만적인 범죄행위로 하여 전쟁전기간 공화국북반부에서는 123만여명의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강점군의 만행을 직접 조사, 취재한바 있는 세계 각국의 조사단들과 기자들은 조선에서의 미제의 만행을 《세계력사상 그 어디에서도 없었던 최악의 만행》으로 략인하면서 살인귀들의 야수성을 온 세상에 신랄히 고발하였다.

하지만 미제의 만행은 이로써 끝난것이 아니었다.

남조선강점 미제 침략군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인민들이 목숨을 빼앗겼다.

의정부녀인뺨끼칠사건, 윤금이살해사건, 신호순, 심미선학살만행...

최근에는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미제는 핵전쟁연습과 함께 세군전실협까지 감행하고있다.

한세기반에 걸치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의 력사와 오늘의 현실을 통하여 조선인민은 미제야말로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 약탈자, 철천지원수라는것을 똑똑히 체험하였다.

조선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의 죄악에 찬 침략사를 반드시 결산할것이며 력사적인 반미대결전을 기어이 빛나는 승리로 결속지을 것이다.

최악의 역사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솔미

유모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선생: 너는 룡구는 잘하는데 시험성적은 왜 그렇게 좋지 못하니?

학생: 룡구를 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서로 도와주지만 시험을 칠 때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고 화

《평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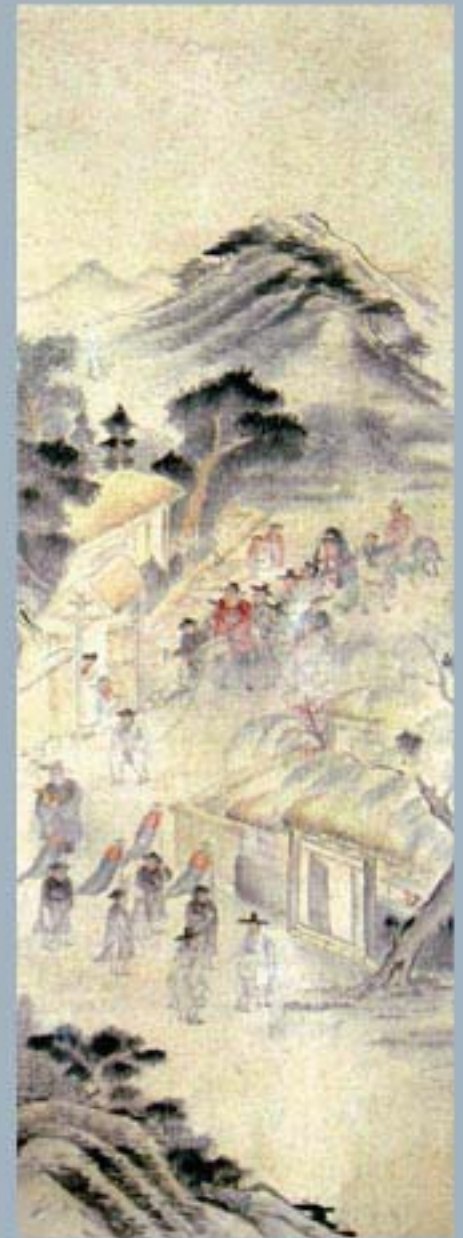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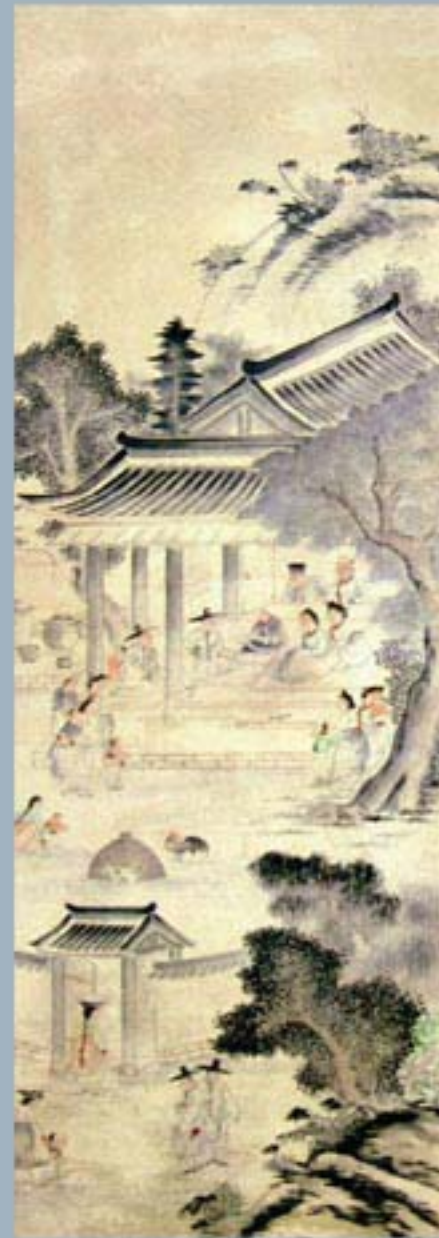
주체45(1956)년 4월 신의주력사박물관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옛날 그림들가운데 현실에 립각하여 그린 그림이 매우 적는데 조선봉건왕조시기 사람들의 생활을 형상한 이 그림은 아주 귀중한 작품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고화 《평생도》는 태어나 첫돌로부터 나이 예순에 이르기까지 량반의 한평생의 의의있는 장면

들을 그린 일대기적인 풍속화작품이다.

고화 《농촌생활도》와 같이 극성이 심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량반의 생활장면들과 대조되게 근로인민들의 생활모습도 한 화면에 담은 그림이므로 당시의 사회상을 리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이다. 창작가와 창작년대는 알려지지 않고있다.

* * *





경축의 축포 본사기자 김성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성대히 경축하는 인민의 마음이런듯 천갈
래만갈래로 터져오르는 축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역세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마음이 담긴 축포는 5월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물들이며 터져오르고
또 터져올랐다.